

#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본 혁신 필요”

전남 농어촌버스 광주 운행 연 300억 책어가 적자 원인  
임시회 시정질문...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개선 시급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버스 광주지역 운행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민주·동구2)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전남지역 농어촌버스 광주 운행 문제 등 버스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시민의 혈세로 매우는 업체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며 1년에 약 300억씩 수익금을 챙겨가는 전남지역 농어촌버스라면서 “향후 사·도지사 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버스 광주지역 운행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민주·동구2)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전남지역 농어촌버스 광주 운행 문제 등 버스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시민의 혈세로 매우는 업체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며 1년에 약 300억씩 수익금을 챙겨가는 전남지역 농어촌버스라면서 “향후 사·도지사 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정 시의원 나현 시의원

대중교통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수수료 이자와 교통시설개선 기금을 취약계층 배우처 사업에 활용하고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투명한 재정 운영과 더불어 시내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교통복지 사업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현 의원(민주·비례)은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자립생활지원 업무 담당자와 공무원의 잦은 교체, ‘체험홈’과 ‘우리집’에 대한 평가 전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 소통의 부재, 자립 생활 지원 매뉴얼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받은 장애인은 총 43명에 불과한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정해진 137명의 자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탈 시설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지원 방안과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과 내에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광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광 기자 kroh@kwangju.co.kr

# 영암·보성에 무궁화동산 조성된다

산림청, 전국 17곳 선정

영암과 보성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내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지로 영암·보성 등 전국 17곳을 선정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들이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라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중이다. 산림청은 올해 전국 26개 시·군·구와 산림청 소속기관 등 30개소 신청을 받아 ▲

명승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후관리 편의성 ▲무궁화동산 지원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17곳을 최종 선정했다. 동산 조성에는 모두 9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1곳당 사업비 1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절반인 5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 전남도의회서 ‘성평등 열린 포럼’ 열려

전남여성가족재단

여성 농민 1시간의 노동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성평등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남 교육의 과제는 무엇일까. 전남여성가족재단이 18일 전남도의회에서 개최하는 ‘전남도의회 성평등 열린 포럼’은 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전남 주요 정책과 의정 활동을 들여다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인 전남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강문성(여수 2·민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의 ‘성평등 문화 의식 확산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11명의 도의원들이

11개 이슈를 통한 전남의 성평등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선 7기 전남의 핵심 정책인 ‘블루이코노미’와 여성의 역할, 고령여성 노인을 위한 복지, 여성농민의 경제활동,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의원들이 숙제해야 할 성희롱예방,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일·생활 균형 등을 주제로 ‘딜레이’ 발언에 나선다. 전남여성가족재단측은 “전남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가능 뿐 아니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포럼이 지역 성평등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업박람회 치유의 정원 찾은 어린이들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17일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개막했다.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치유농업관 내 치유의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예술인 복지혜택도 지역 불균형 심각

서울·수도권 쏠림...광주·전남 1%대

예술인들의 복지혜택이 서울과 경기권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광주와 전남이 1%대 수준에 그치는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0~1%대에 불과해 예술인들의 복지혜

택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술활동증명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등록자는 5만

64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자격 조건으로,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전국 단위 사업으로,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권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이 전체 등록자 중 43%를, 경기도가 23%를 넘게 차지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1.89%, 1.09%에 불과했다.

부산과 경남이 각각 5.98%와 5.31%로 그나마 지방에서는 높은 편이었다. 세종과 제주를 각각 0.26%, 0.79%에 그쳤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2%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각 시도별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20~24일 ‘사회적경제 협업박람회’

상품 홍보·판로 개척 등 4개 분야  
광주·대구 달빛포럼 등 판로지원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일원에서 사회적경제 협업박람회 ‘함께가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다. 광주사회적경제의 업종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협업분야별로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협업사업 홍보 ▲상품홍보 ▲판로개척 ▲판로지원 등 총 4개 분야에서 17개의 세부행사로 진행된다. 협업사업 분야에서는 반려동물분과의 ‘제2회 멧돼지피크닉’, 교육·체험분과의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축제’, 커피·음료 및 제과·제빵분과의 신제품 시식회가 열린다. 상품홍보 분야에서는 협업사업 100여

개의 사회적경제 제품과 서비스 등 결과물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2019 광주 사회적경제 상품대전’도 개최한다. 공공구매나 판로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 공공구매 약정식, 유통채널 엔디(MD) 초청 상담회도 진행된다. 판로지원 포럼도 열린다. 광주·대구 달빛포럼 사업의 하나로 영호남 사회적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공동토론회, 광주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 포럼 등이 진행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